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2월 1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 임 경 수 -

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며 자랐습니다. 모두
가 어렵게 살던 그 당시 시골에서 자라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테면,
11살 때 동네 친구들과 숲에서 놀다가 무서운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은 적
이 있고, 16살 때는 마을에 대민 지원을 나온 군용
덤프트럭을 타고 학교에 가다가 산마루에서 차가
전복되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한번은 서울
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저희 마을과 인
근 여러 마을로 한 달 동안 농촌계몽활동을 나왔습
니다. 동네에 교회당이 없던 그 때에 신학생들은 낮
에는 마을을 돌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밤
에는 숙소에 우리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을 모아놓
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
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
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등을 그림책을 넘겨 가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던 그 때에 우리는 대학생 형과 누나
들이 나눠주는 과자를 먹을 수 있어서 더 모이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때 들은 하나
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이야기가 잊히지 않
고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 훗날 복음을 듣고 예수
님을 믿게 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안양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며 기계설비의
점검과 정비와 보수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고
장이 난 기계를 수리하러 갔다가, 그만 동료의 실수
로 제 머리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얼굴뼈가 여덟 조각으로 부서
지고, 이가 열 개나 빠지고 또 혀가 잘리고 입술이
크게 찢어지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주위에서 모두
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그 후로 몸이 조금만 피곤
해도 얼굴뼈가 심하게 아프고 머릿속이 욱신거리
며 참기 힘들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가 이웃에 사는 분의 전도로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
니다. 저의 상태를 알게 된 구역 성도님들이 저를 위
로해 주고 교회의 예배와 구역예배에서 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번
도 교회에 가 본 적이 없었고 또 누가 복음을 말하
면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거부하던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고 믿음과 소망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
게도 그 얼마 후에 아픈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구
역장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꼭
교회에 같이 가요” 하면, “당신이나 다녀와” 하며 거
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머리가 아프
길래, 그날은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에 참석한 날, 당회장 조 목사님께
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진리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에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주제로 설교해 주셨
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과 신앙 용어가 당장은 이해
하기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더니, ‘아,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기술 직종이라
여러 가지 사고가 잦은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회사
에서 왼쪽 손이 반쯤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리하여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부득이 퇴직하였습
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낙심한 저를 하나님
께서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로 잘 극복하게 해 주시
고, 경비업무 일을 하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두 다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
지하오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
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님과 교회를 섬기는 이 행복감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후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까지 주셔서 더 온유
하고 겸손하게, 더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
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을 받음이라.”(베드로전서 1:8,9) 아멘! 저의 영혼
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주 하나님
을 찬양합니다.

지난 번 송구영신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
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고차원적 생활
규범을 좇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면
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8단원 : 성도의 영적 싸움)

(제36과)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

- 본문 : 에베소서 6:10-17
- 요절 :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
- 찬송 : 388장(새찬송가 348장), 389장(새찬송가 351장)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훼방하는 사단과 귀신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요 10:10)라고 하신 말씀이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사단과 귀신들의 악한 성격과 활동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이로써 사단의 꾀계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릇된 지식으로 인하여 신앙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단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만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시 148:2~5)는 말씀 중에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는 천사들(천군을 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욥 38:4~7). 성경에 천사의 정확한 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천만 천사’라는 표현이나, 시편 68편 17절의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 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시 103:20),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시 104:4, 히 12:22~23).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써’(유 1:6)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이 땅에 던져진 것’은 천사들 중 3분의 1가량이 함께 타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는 루시퍼(계명성)가 타락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루시퍼는 사단이 되었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이들은 천상에서 쫓겨나 공중 하늘에 거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지상으로 내려 쫓기고 말았습니다(눅 10:18).

2.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役事)와 최후의 운명

사단과 그 졸개인 귀신들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줌으로써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과 행동으로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사단의 꾀임에 빠진 까닭입니다.

사단은 그가 교만한 까닭에 망하였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 타락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막 16:1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귀신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성도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마귀를 대적할 때 처음에는 우는 사자처럼 덩벼들던 마귀가 등을 보이며 도주하고 마는 것입니다(약 4:7).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단과 귀신들을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하실 것이며 천년왕국 후에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계 20:1~3, 10).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계 12:12). 사단은 때로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고후 11:14)

그러나 성도들은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최후의 운명을 알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멸하시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의 행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